

靈樞水脹에 對한 研究

I. 緒論	113
II. 研究方法 및 資料	114
1. 研究方法	114
2. 研究資料	114
III. 本論	115
IV. 意譯	132
V. 結論	133
VI. 參考文獻	135
VII. 參考辭典	136
VIII. ABSTRACT	137

靈樞水脹에 對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教室 김형진, 申榮日

碩士學位論文

1. 緒論

현대에는 스트레스 음주 약물중독 환경공해 등으로 인하여 肝硬變 黃疸 子宮疾患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病證이 수반하는 증상 가운데 腹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水脹으로 보고 치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상에서 응용되지 않고 있다. 水脹은 水液代謝의 障礙로 인하여 水液이 腹部에 停留된 病證으로 水腫가운데 實證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靈樞·五癰津液別』篇에서는 邪氣內逆 則氣爲之閉塞而不行 不行則爲水脹 ... 水溢則爲水脹¹⁾이라고 하여 水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病因 病機 病證 治法 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靈樞·水脹』篇에서는 이보다 자세하게 水脹에 대해論하고 있고, 또한 膚脹·鼓脹·腸覃·石瘕를 나누어 설명하여 각각의 病證에 대해 辨證 治療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外臺秘要』, 『太平聖惠方』, 『普濟方』, 『醫學綱目』, 『東醫寶鑑』 등에서本篇의 原文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에 대한 治法 治方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이 歷代 諸家들이 논하는 水脹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임상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水脹』篇은 『靈樞』第五十七에 編述되어 있는데, 『太素』에는 卷二十九 「脹論」에, 『甲乙經』에는 卷八 「水膚脹鼓脹腸覃石瘕」, 第四에, 『類經』에는 卷十六 「疾病類·水膚脹鼓脹腸覃石瘕石水」로 나누어 敍述되어 있다.

本篇을 『黃帝內經章句索引』에는 六節로 나누었고, 『靈樞經校釋』에는 四章으로 나누었으며, 程士德의 『內經』에는 三章으로 나누고 있는데, 著者は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三章으로 나누었다.

本篇은 序頭에 水脹에 대한 해설이 있으며 여기에서論하고 있는 六種의 疾病이 모두 水病과 비슷한 證候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水脹篇」이라 名命하였는데, 第一章에서는 水腫·膚脹·鼓脹의 病機를, 第二章에서는 膚脹·腸覃·石瘕의 鑑別을, 第三章에서는 膚脹·鼓脹의 治法에 對하여論述하고 있다. 主要 內容을 簡略히 살펴보면, 水脹을 水液代謝의 障礙로 인하여 水液이 腹部에 停留된 病證으로 인식하고, 水腫·膚脹·鼓脹·腸覃·石瘕 등의 病證, 病因, 病機, 證候와 鑑別, 治療方法 등에 對하여論하고 있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83.

다. 또한 水腫과 膚脹과 鼓脹은 腹部의 彈性和 皮膚色으로, 腸覃과 石瘕는 男女 어느 쪽에 생기는가와 月經의 有無로 區分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膚脹과 鼓脹과 腸覃 등의 治療方法에 對하여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文章이 짧고, 古文으로 되어 있어 理解하기가 어렵고 版本마다 글자가 다르며, 全面的인 各 註釋家의 比較 研究가 없을 뿐만 아니라 註釋도 한결같지 않아 본래의 뜻을 理解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版本의 誤謬를 바로 잡고 正確한 註釋을 가려내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을 보다 精確하게 理解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研究에 착수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研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內容別로 三章으로 나누고, 正文과 註釋의 原文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가. 正文의 底本은 聚珍做宋版印本 『黃帝內經靈樞』로 하였다.

나. 『黃帝內經章句索引』, 『類經』, 『靈樞經校釋』 및 程士德의 『內經』을 參考하여 그 內容을 三章으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現代化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 調査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語와 訓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三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 別로 모아 '○'로 구분하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異見의 對象이 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正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자. 본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r 00'等이며, 脚註는 '1), 2), 3), 4) '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2. 研究資料

〈表.一〉 校勘 書名 및 略稱

番號	書名	略稱
1	黃帝內經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2	靈樞校注	明繡谷書林周曰校重刊本 周本
3	語譯/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4	靈樞經校釋	日本舊抄本 日抄本
5	『黃帝內經太素』	太素
6	『金匱要略』	金匱
7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8	『黃帝內經素問』	素問
9	『黃帝內經靈樞』	靈樞
10	『張馬合注本 黃帝內經素問靈樞』	張馬合本
11	『脈經』	脈經
12	『諸病源候論』	病源
13	『千金要方』	千金
14	『外臺秘要』	外臺
15	『普濟方』	普濟方
16	『太平聖惠方』	聖惠方
17	『醫學綱目』	綱目
18	『素問病機宜保命集』	保命集
19	『衛生寶鑑』	衛生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番號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李中梓	明	內經知要	李
5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6	黃元御	175	靈樞懸解	黃
7	丹波元簡	180	靈樞識	丹波
8	章楠	182	靈素節注類編醫門棒喝三集	章
9	楊維傑	197	黃帝內經靈樞譯解	譯解
10	鄺鶴春	198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11	河北醫學院	198	靈樞經校釋	校釋
12	程士德	198	內經	程
13	李今庸	198	新編黃帝內經綱目	綱目

Ⅲ. 本論

第一章. 水腫·膚脹·鼓脹의 病機

【原文】

黃帝問於岐伯曰¹⁾ 水 與膚脹⁽¹⁾鼓脹⁽²⁾腸覃⁽³⁾石瘕⁽⁴⁾石水⁽²⁾⁽⁵⁾는 何以別之⁽⁵⁾오.

岐伯이 答曰⁴⁾水始起也⁵⁾에 目窠⁶⁾⁽⁶⁾上 微腫⁷⁾이 如新臥起之狀⁸⁾하며 其頸脈이 動⁹⁾하고 時效¹⁰⁾하며 陰股間이 寒¹¹⁾하고 足脛이 腫¹²⁾⁽⁷⁾하며 腹乃大¹³⁾하면 其水已成矣¹⁴⁾라 以手按其腹¹⁵⁾하면 隨手而起 如囊⁽⁸⁾水之狀¹⁶⁾하니 此其候也니이다.

【校勘】

- 1) 黃帝問於岐伯曰: 『甲乙』卷八 第四에는 '黃帝問曰'로 되어 있다.
- 2) 與膚脹鼓脹腸覃石瘕石水: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外臺·水腫門』 및 『普濟方·水病門總論』에는 모두 '與膚脹鼓脹腸覃石瘕'로 되어 있다.
- 3) 何以別之: 『太素·脹論』에는 '何以別'로 되어 있다.
- 4) 岐伯答曰: 『太素·脹論』에는 '岐伯曰'로, 『甲乙』卷八 第四에는 '岐伯對曰'로 되어 있다.
- 5) 水始起也: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에는 모두 '水之始起也'로 되어 있다.
- 6) 目窠: 『素問·平人氣象論』과 『金匱』卷中 第十四와 『脈經』卷八 第八과 『病源·水

- 腫候』에는 모두 '目裏'로, 『太素·脹論』과 『千金』卷二十一 第四에는 '目果'로, 『外臺·水腫門』에는 '目裏'로 되어 있다.
- 7) 微腫: 『金匱·卷中·第十四』와 『脈經·卷八·第八』에는 '微攢'으로, 『太素·脹論』과 『太素·尺診』에는 모두 '微癰'으로 되어 있다.
- 8) 如新臥起之狀: 『靈樞·論疾診尺篇』에는 '如新臥起狀'으로, 『太素·脹論』에는 '如臥新起之狀'으로 되어 있다.
- 9) 其頸脈動: 『太素·脹論』과 『甲乙』卷八 第四와 『病源·水腫候』와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外臺·水腫門』 및 『普濟方·腫脹論』에는 모두 '頸脈動'으로 되어 있다.
- 10) 時效: 『保命集·腫脹論』에는 '效'로 되어 있다.
- 11) 陰股間寒: 『病源·水腫候』와 『聖惠方·水病論』에는 모두 '股間冷'으로 되어 있다.
- 12) 足脛腫: 『太素·脹論』에는 '足胫癰'으로,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外臺·水腫門』과 『保命集·腫脹論』와 『張馬合本』 및 『普濟方·腫脹論』에는 모두 '足脛腫'으로 되어 있다.
- 13) 腹乃大: 『千金』卷二十一 第四에는 '腹仍大'로 되어 있다.
- 14) 其水已成矣: 『太素·脹論』과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外臺·水腫門』에는 모두 '其水已成也'로, 『普濟方·腫脹論』에는 '其水之盛也'로 되어 있다.
- 15) 以手按其腹: 『病源·水腫候』와 『聖惠方·水病論』에는 '以手按腫處'로 되어

있다.

- 16) 如裹水之狀: 『病源·水腫候』에는 '如物裹水之狀'으로, 『聖惠方·水病論』에는 '如皮裹水之狀'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膚脹(부창): 寒邪가 皮下에 侵犯하여 온몸이 붓는 것을 말하는데, 배가 몹시 불러 오르나 땀만하지는 않으며, 몸이 붓은 곳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들어가 나오지 않는 病이다.
- (2) 鼓脹(고창): 배가 불러 오르면서 그득하고 땀만하며, 속이 비어 있어 마치 북과 같다 하여 鼓脹이라 하였다.
- (3) 腸覃(장심): 아랫배에 땀만한 腫物이 있는 病證으로, 氣血이 運行되지 못해 腫物이 생긴 것이다. 初期에는 아랫배 속에 땀만한 腫物이 생겨서 점차 커져 妊娠한 것처럼 배가 불러 오르는데, 누르면 땀만하고 밀면 밀려 움직이며, 月經은 異常이 없으나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수가 있다.
- (4) 石瘕(석가): 經期와 產後에는 胞宮이 空虛한데다가 寒氣가 虛를 틈타 侵入하면 血이 寒凝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래되면 結聚하여 塊가 形成되어 점차 커지는 病이다.
- (5) 石水(석수): 浮腫의 하나로 腎陽이 虛하거나 水氣가 下焦에 몰려서 생기는 것으로, 아랫배가 불러 오르고 돌같이 땀만하며, 옆구리가 뻣근하고 아프며, 배가 그득하면서도 숨은 차지 않는 病이다.
- (6) 窠: 穴也, 구멍 과

(7) 瘰: 脛氣足腫也, 수종다리 중. 腫과 통용

(8) 裹: 包也, 쌀 과

【較註】

水始起也 目窠上微腫 如新臥起之狀 其頸脈動時效 陰股間寒 足脛腫 腹乃大 其水已成矣 以手按其腹 隨手而起 如裹水之狀 此其候也

楊·馬·章은 “目窠는 눈꺼풀이다. 무릇 사람이 이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약간 붓는데 水病 초기에도 이와 같다. 頸脈은 結喉 양쪽 胃經의 人迎脈을 말하니, 水邪가 胃에 쌓이면 肺氣가 上逆하므로 頸脈이 뛰고 때때로 기침을 한다. 水邪가 넘쳐 三焦로 흘러 들어가면 陽氣가 조절되지 않아 陰股부위가 차가워지고 다리가 부으며 배가 부풀어오르니 水病이 이미 발병한 것이다. 脛滿된 腹部를 눌렀다 놓으면 손을 따라 올라오는 것이 물주머니를 눌렀다 놓은 것 같으니 이것이 水脹病의 증후이다.”²⁾라고 하였고, 景岳·李·黃·丹波·『譯解』·『語譯』·『校釋』에서

2) 楊: 水病之狀에 候有六別하니 一者는 目果微腫요 二者는 足陽明人迎之脈이 目氏見其動하야 不待按之요 三者는 脛氣가 循足少陰脈하야 上衝於肺 故로 時有效요 四者는 陰下陰股間冷요 五者는 脚脛腫起요 六者는 腹如囊盛水狀하야 按之不堅하고 去手即起니 此之六種이 水病候也라 ★脛: 袁刻本에는 目氏로 되어 있다 ○馬: 此는 言水之證也라 病方起時에 目之下爲窠가 其微有所腫이 如新臥起之狀이니 大抵 人之臥起者에 其目窠上이 必腫也라 頸脈은 即人迎穴也니 此脈動于頸而效動于內하고 在陰股則冷하야 在足脛則腫하고 在上腹則大하니 以手按其腹 則隨手而起가 如裹水狀하니 此水病已成而可驗者也라 ●章: 目窠는 眼胞也라 凡人睡臥初起에 眼胞微腫하니 水病始起에도 亦如之라 頸脈은 喉旁人迎胃脈也니 水蓄于胃하면 肺氣逆 故로 頸脈動而時咳也라 水溢三焦하야 陽氣不調 故로 陰股間寒하고 而足脛腫하며 腹乃大하니 其水已成矣라 按其腹하면 隨手而起가 如囊裹水之狀하니 此爲水脹之證候也라

는 “바로 눈아래가 目窠이니 이곳이 잠에서 막 일어났을 때처럼 약간 붓는다는 것은 잠을 자는 누에의 형상과 같다는 것이다. 頸脈은 足陽明胃經의 人迎穴이니 陽明經脈은 人迎으로부터 복부 안쪽으로 내려가는데 水邪가 침범한 까닭에 經脈이 뛰는다고 하였다. 水病의 標는 肺에 있으므로 때때로 기침을 하며, 水邪는 陰邪이므로 陰分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瘰은 붓는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물주머니는 눌렀다 놓으면 손을 따라 바로 나오는데 水病도 이와 같다. 이상은 水腫의 證候를 논한 것이다.”³⁾라고 하였고, 張은

2 3) 景岳: 目之下爲目窠니 微腫如新臥起之狀者는 形如臥蠶也라 窠는 音科라 頸脈은 足陽明人迎也니 陽明之脈은 自人迎으로 下循腹裏而水邪乘之 故로 爲頸脈動이라 水之標在肺 故로 爲時效요 陰邪는 始於陰分也라 瘰는 腫으로 同이라 凡按水囊者면 必隨手而起 故로 病水者도 亦若是라 以上은 皆水腫之候라 ○李: 目之下爲目窠니 如新臥起者는 形如臥蠶也라 頸脈은 足陽明人迎也라 陽明之脈은 自人迎으로 下循腹裏而水邪乘之 故로 爲頸脈動이요 水之標在肺 故로 爲時效라 此上은 皆言水腫之候라 ○黃: 目窠는 目下也라 頸脈은 足陽明之人迎이니 寒水侮土하야 胃氣上逆 故로 頸脈動甚하니 望而知之也요 肺氣莫降 故로 時咳라 足三陰은 行於股內하되 陰盛於下 故로 陰股間寒이라 胃氣不能下行 故로 足脛腫이라 水泛土濕하고 中氣不運 故로 腹乃大也라 ○丹波: 「平人氣象論」에 曰頸脈動喘疾咳嗽 曰水요 目窠微腫如臥蠶起之狀를 曰水라하니 亦與本節及「論疾診尺」篇으로 文同이라 不謂之人迎而謂頸脈者는 非診之而始知其動之疾하야 以其望而知頸脈之疾也라 ○譯解: 石水는 病名이라 本篇은 對於石水の症狀雖未提起니 但在本書「邪氣臟腑病形」篇에 曾有說明하되 腎脈……微大爲石水니 起臍已下하야 至小腹腫脹然하고 上至胃脘하니 死不治라하고 又「素問」陰陽別論에 說陰陽結邪하야 多陰少陽을 名曰石水니 小腹腫이라하고 又「大奇論」에 也說腎肝이 并沈하면 爲石水라하니라 別在「金匱要略」에 也有記載하되 石水는 其脈自沈하고 外證腹滿不喘이라하니 均可參閱이라 目窠上은 是指目下的部位라 ○語譯: 王冰이 曰頸脈은 謂耳下及結喉旁人迎脈이라하니라 陰股는 大腿內側이라 足脛腫은 足和小腿浮腫이라 ○校釋: 頸脈은 指人迎脈而言이라

“余氏が ‘이는 太陽膀胱의 水氣가 皮膚로 흘러 넘쳐서 水脹이 된 것이다. 太陽의 脈氣가 表部의 皮膚로 運行하니, 이 水脹은 水氣가 脈氣를 따라 皮膚로 넘쳐서 病든 것이다. 太陽의 脈은 目內眥에서 起始하여 이마로 上行하고 정수리에 서 交會하며 뒷목을 따라 下行하는데, 눈 밑이 약간 붓는 것은 水氣가 經脈을 따라 위로 넘쳤기 때문이다. 頸脈이 뛰는 것은 水氣가 正氣를 損傷시킨 것이 脈까지 波及되었기 때문이요, 기침하는 것은 水邪가 肺에 上乘했기 때문이요, 陰股부위가 차가워지고 다리가 붓는 것은 太陽의 脈氣가 虛하여 水氣가 아래로 流入되었기 때문이요, 배가 부풀어 커지는 것은 水邪가 범람하여 中土가 虛해졌기 때문이다. 水氣가 皮膚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눌렀다 놓으면 손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마치 물주머니를 눌렀다 놓은 것과 같은데, 이것이 그 證候다.’”고 했다.⁴⁾”고 하였고, 程은 “目窠는 眼瞼을 말한다. 『素問·評熱病論』에서 ‘水는 陰이고, 目下도 또한 陰이며, 腹은 至陰이 居處하는 곳이므로 水氣가 배에 있으면 반드시 눈 밑이 붓는다.’”고 했다. 頸脈을 여러 注釋家들이 모두 人迎脈이라고 했으나, 人迎脈은 본래 항상 쉬지 않고 뛰고 있으니, 水腫으로 인하여 뛰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頸脈을 가리켜 人迎脈이라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⁵⁾”고 하였다.

4) 張: 余氏曰 此는 太陽膀胱之水가 溢于皮膚而爲水脹也라 太陽之氣가 運行于膚表하니 此는 水隨氣溢而爲病也라 太陽之脈은 起于目內眥하야 上額交巔하고 循頸而下하니 目窠上微腫은 水循經而溢于上也라 其頸脈動은 水傷氣而及於脈也요 效者는 水邪上乘于肺也요 陰股寒과 足脛腫은 太陽之氣虛而水流于下也요 腹大者는 水泛而土虛也라 水在皮中 故로 按之隨手而起가 如裹水之狀하니 此其候也라하니라

5) 程: 目窠는 指眼瞼이라 『素問·評熱病論』에 水者는 陰也요 目下도 亦陰也며 腹者는 至陰之所居 故로 水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水與膚脹鼓脹腸覃石瘕石水’는 『語譯』과 『校釋』에 모두 “『甲乙』, 『千金』, 『外臺』, 『普濟方』에는 모두 ‘石水’ 두 글자가 없고 오직 『太素』에만 있는데, 楊注에 ‘石水 一種은 原文이 없어서 注解할 수 없다.’”고 했다. 살펴보면 뒷 문장에도 ‘石水’를 풀이해 놓지 않은 것으로 보아 ‘石水’ 두 글자는 衍文인 것 같다.”고 하였다. ‘石水’에 대하여 張의 주장(石水者 腎水也)과 같이 水與膚脹鼓脹腸覃石瘕와 구별하여 전체적인 水病의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水與’라는 文句가 있는 것으로 보아 膚脹 鼓脹 腸覃 石瘕와 마찬가지로 적은 의미의 石水로 보아야 하니 ‘石水’ 두 글자를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內經의 編纂課程에서 石水의 내용이 脫漏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2章의 考察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目窠’는 『外臺秘要』에는 ‘窠’가 ‘裏’로 되어 있는데, 이는 ‘裏’의 誤字로 볼 수 있고, 『素問·平人氣象論』과 『金匱』와 『脈經』와 『病源』에는 ‘窠’가 모두 ‘裏’로 되어 있다. 『太素』와 『千金』에는 모두 ‘目窠’가 ‘目果’로 되어 있는데, ‘果’는 ‘裏’의 略字로 보이며, 『太素·卷十五·尺診』 楊注에 ‘目果는 眼瞼이다.’라고 한 것을 보아도 ‘目窠’는 ‘目裏’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微腫’은 『金匱』와 『脈經』에는 ‘腫’이 ‘擁’으로 되어 있고, 『太素』에는 ‘癰’으로 되어 있는데 『千

在腹者는 必使目下腫也라하니라 頸脈은 諸注에 均作 人迎脈이라하니 但人迎脈은 本自動而不休하니 非因水腫而始動也라 故로 指頸脈爲人迎脈은 似不確이라

金』校注에 “『靈樞』와 『太素』에는 ‘微擁’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며, 또한 『論疾診尺』篇에도 ‘腫’이 ‘癰’으로 되어 있으나 ‘腫’은 마땅히 ‘癰’으로 해야 할 것 같다. 『素問·平熱病論』王注에 “癰은 下眼臉이 臥蠶처럼 약간 부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癰’과 ‘癰’은 품이 같으므로 ‘癰’을 ‘癰’으로 잘못 쓴 것이다. 『醫壘元戎』卷十 引用文에는 ‘癰’으로 옳게 되어 있고, 『千金』校注에서도 ‘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모두 ‘붓는다’는 의미로 보고 있으므로 ‘微腫’은 그대로 놓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足脛腫’은 『太素』에는 ‘足胛癰’으로, 『甲乙』, 『千金』, 『外臺』, 『保命集』, 『藏本』, 『馬注本』, 『普濟方』에 모두 ‘足脛腫’으로 되어 있는데, ‘癰’과 ‘腫’은 서로 통용되며 『爾雅·釋木』郭注 ‘癰腫無枝條’의 釋文에 ‘腫本或作癰’이라 한 것을 보면 원문 그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校註에 對한 考察〕

‘頸脈’에 대하여 楊·馬·景岳·『語譯』·『校釋』 등에서는 ‘人迎脈’으로 보았으며, 程은 人迎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張은 太陽之脈을 포함한 목 전체의 經脈으로 보았는데, 程이나 張은 확실하게 部位나 經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목부위에 있는 經脈中 動하는 곳은 人迎脈 한 곳이므로 ‘頸脈’은 ‘人迎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人迎脈은 항상 쉬지 않고 뛰는데 정상적일 경우 약하게 뛰지만 水脹을 비롯한 제반 水病에 걸리면 뛰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니 이에 대한 程의 견해가 임상적인 意義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按其腹’에 대해서 楊·馬·章은 腹部를 누르

는 것으로 보았으며, 景岳·李·黃·丹波는 腹部라는 특정부위를 말하지 않고 ‘腫處’라고 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전체부위를 말하고 있는데, 水脹은 水病가운데 腹部가 붓는 것이 그 특징이므로 腫處로 보는 것보다는 腹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直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시기를, 水病과 膚脹·鼓脹·腸覃·石瘕·石水是 어떻게 구별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水病이 처음 일어날 때에 下眼胞가 약간 붓는 것이 마치 막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의 (目窠)모양과 같으며, 頸脈이 뛰고 때로 기침하며, 陰股(大腿內側) 部位가 차고 정강이가 부으며, 배가 부풀어 커지면 水病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손으로 배를 눌렀다 놓으면 손을 따라 일어나 올라오는 것이 마치 물주머니를 눌렀다 놓은 것과 같으니, 이것이 水病의 證候입니다.

第二章. 膚脹·腸覃·石瘕의 鑑別

〔原文〕

黃帝曰 膚脹은 何以候之

岐伯이 曰¹⁾ 膚脹者는 寒氣客于皮膚之間²⁾하여 皤³⁾皤⁴⁾然하며 不堅⁵⁾하며 腹大身盡腫하며 皮厚⁶⁾로대 按其腹하면 窅⁷⁾而不起⁸⁾하되 腹色은 不變하니 此其候也니이다

鼓脹은 何如

岐伯이 曰⁹⁾ 腹脹身皆大¹⁰⁾하니 大與膚脹等也¹¹⁾로대 色蒼黃¹²⁾하고 腹筋起¹³⁾하니 此其候也니이다

腸覃은 何如

岐伯이 曰¹¹⁾寒氣客于腸外하야 與衛氣相搏¹²⁾하면 氣不得營¹³⁾하야 因有所繫¹⁴⁾하야 癰¹⁵⁾而內著^{15X4)}하야 惡氣乃起하야 瘰肉¹⁶⁾乃生¹⁶⁾이라 其始生也¹⁷⁾에 大如鷄卵이라가 稍以益大하야 至其成¹⁸⁾하야는 如懷子之狀¹⁹⁾하고 久者²⁰⁾는 離歲²⁰⁾하야 按之則堅하고 推之則移하며 月事以時下²¹⁾하니 此其候也니이다

石瘕는 何如오

岐伯이 曰石瘕²²⁾는 生於胞中하니 寒氣客於子門이라 子門閉塞²³⁾하여 氣不得通²⁴⁾하고 惡血을 當寫不寫하야 瘀²⁵⁾以留止²⁵⁾하야 日以益大²⁶⁾하야 狀如懷子하고 月事不以時下²⁷⁾라 皆生於女子니 可導而下²⁸⁾니이다

【校勘】

- 1) 黃帝曰膚脹何以候之岐伯曰: 『甲乙』卷八 第四에는 이 12字가 없고, 『保命集·腫脹論』에는 '帝曰膚脹何如岐伯曰'로 되어 있다.
- 2) 寒氣客于皮膚之間: 『保命集·腫脹論』에는 '寒氣客于皮中'으로 되어 있다.
- 3) 瘰瘰然不堅: 『太素·脹論』과 『甲乙』卷八 第四와 『外臺·水腫門』에는 모두 '殼殼然不堅'으로, 『千金』卷二十一 第四에는 '殼殼然而堅'으로, 『普濟方·卷一百九十一·腫脹論』에는 '敦敦然而堅'으로 되어 있다.
- 4) 皮厚: 『甲乙』卷八 第四에는 '皮膚厚'로 되어 있다.
- 5) 窅而不起: 『甲乙』卷八 第四에는 '腹陷而不起'로,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外臺·水腫門』 및 『普濟方·水病門總論』에는 모두 '陷而不起'로 되어 있다.
- 6) 鼓脹何如岐伯曰: 『甲乙』卷八 第四에는

'鼓脹何如岐伯曰鼓脹者'로 되어 있다.

- 7) 腹脹身皆大: 『太素·脹論』에는 '腹身皆大'로, 『甲乙』卷八 第四와 『普濟方·水病門總論』에는 모두 '腹身皆腫大'로,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外臺·水腫門』에는 모두 '腹脹身腫大'로 되어 있다.
- 8) 大與膚脹等也: 『甲乙』卷八 第四에는 '如膚脹等'으로 되어 있다.
- 9) 色蒼黃: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에는 모두 '其色蒼黃'으로 되어 있다.
- 10) 腹筋起: 『太素·脹論』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外臺·水腫門』에는 모두 '腹脈起'로 되어 있으며, 『甲乙』校語에 "『甲乙』의 다른 板本에도 '脈'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 11) 腸覃何如岐伯曰: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에는 모두 '腸覃者'로 되어 있다.
- 12) 與衛氣相搏: 『千金』卷二十一 第四에는 '與胃氣相薄'으로, 『外臺·水腫門』에는 '與衛氣相薄'으로, 『保命集·腫脹論』에는 '與衛相搏'으로, 『普濟方·腫脹論』에는 '與胃氣相傳'으로 되어 있다.
- 13) 氣不得營: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外臺·水腫門』에는 모두 '正氣不得營'으로, 『衛生·腸覃論』引用文에는 '衛氣不得營'으로 되어 있다.
- 14) 因有所繫: 『太素·脹論』에는 '因其所繫'로 되어 있다.
- 15) 癰而內著: 『太素·脹論』과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普濟方·腫脹論』에는 모두 '瘰而內著'으로

- 되어 있다.
- 16) 瘰肉乃生: 『太素·脹論』과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普濟方·腫脹論』에는 모두 '息肉乃生'으로, 『保命集·腫脹論』에는 '瘰肉生'으로 되어 있다.
- 17) 其始生也: 『太素·脹論』에는 '其始也'로, 『保命集·腫脹論』에는 '其始大也'로 되어 있다.
- 18) 至其成: 『太素·脹論』와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外臺·水腫門』에는 모두 '至其成也'로, 『普濟方·腫脹論』에는 '及其成也'로 되어 있다.
- 19) 如懷子之狀: 『甲乙』卷八 第四와 『保命集·腫脹論』에는 모두 '如懷子狀'으로,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外臺·水腫門』 및 『普濟方·腫脹論』에는 모두 '若懷子之狀'으로 되어 있다.
- 20) 久者離歲: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外臺·水腫門』 및 『普濟方·腫脹論』에는 모두 '久者離歲月'로, 『保命集·腫脹論』에는 '久離歲'로 되어 있으며, 이와는 달리 『周本』과 『張注本』에는 모두 '歲'字가 '臟'字로 되어 있다.
- 21) 月事以時下: 『太素·脹論』에는 '月事以時'로,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普濟方·水病門總論』에는 모두 '月事時下'로, 『外臺·水腫門』과 『保命集·腫脹論』에는 모두 '月事不以時下'로 되어 있다.
- 22) 岐伯曰石瘕: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外臺·水腫門』 및 『普濟方·腫脹論』에는 모두 '石瘕者'로 되어 있다.
- 23) 子門閉塞: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普濟方·水病門總論』에는 모두 '子宮閉塞'으로 되어 있다.
- 24) 氣不得通: 『太素·脹論』와 『甲乙』卷八 第四 및 『保命集·腫脹論』에는 모두 '氣不通'으로, 『衛生·石瘕論』 引用文에는 '使氣不通'으로 되어 있다.
- 25) 惡血當寫不寫衄以留止: 『甲乙』卷八 第四에는 '惡血當寫不寫衄乃留止'로, 『保命集·腫脹論』에는 '惡血當寫不寫因以留止'로 되어 있다.
- 26) 日以益大: 『衛生·石瘕論』 引用文에는 '日久益大'로 되어 있다.
- 27) 月事不以時下: 『保命集·腫脹論』에는 '月事不時'로 되어 있는데, 『校釋』에 "『熊本』과 『日抄本』에는 '下'가 모두 '不'로 되어 있고, 밑으로 붙여서 읽고 있다."고 하였다.
- 28) 可導而下: 『甲乙』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普濟方·腫脹論』에는 모두 '可導而下之'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瘰: 不堅也, 튼튼하지 못할 공
 (2) 窞: 深也, 움푹는 요
 (3) 癰: 積聚也, 적병 벽
 (4) 著: 붙을 착
 (5) 瘰肉: 息肉과 통용
 (6) 衄: 凝血也, 어혈질 배

【較註】

- 〔1〕 膚脹 何以候之 膚脹者 寒氣客于皮膚之

間 整整然不堅 腹大身盡腫 皮厚 按其腹 窅而不起 腹色不變 此其候也

楊·馬·張·黃·章·『語譯』·『譯解』·『綱目』에서는 “寒氣가 皮膚를 침범하면 陽氣가 行하지 못하여 氣分에 病이 생기니 북처럼 소리가 나고 氣病이므로 단단하지 않으며 腹部와 몸전체가 부으며 피부가 두터워진다. 邪氣가 피부에 있어서 눌렀다 놓아도 바로 올라오지 않으며 피부가 두터운 까닭에 복부의 색이 변함이 없다.”⁶⁾고 하

6) 楊：次解膚脹에 凡有五別하니 一者는 寒氣循於衛氣하야 客於皮膚之間이요 二者는 爲腫不堅이요 三者는 腹大身腫이요 四者는 皮厚하야 按之不起요 五者는 腹色不變이니 膚脹所由與候에 有斯五別也라 ○馬：此는 言膚脹之證也라 寒氣客于皮膚之間하야 其聲整整然而不堅하며 其腹大하고 其身盡腫하며 其皮厚로대 但按其腹하면 則窅而不起하되 其腹色은 亦不變하니 此膚脹之候也라 按컨대 「論疾診尺」篇之風水膚脹은 當爲感風而成이로대 此膚脹者는 乃曰寒氣所客이라하니 似宜有風寒之異라 且彼言按其手足하면 窅而不起라하야 날 此曰按其腹하면 窅而不起라하니 則當知窅而不起相同이나 特有手足與腹之異니 宜詳辨之라 ○張：余氏曰 寒者는 水之氣也니 此는 無形之氣客于皮膚하야 而爲虛脹也라 無形之氣 故로 整整然不堅이라 腹脹 故로 腹大身盡腫也라 寒氣在於肌 故로 皮厚深也라 夫水在皮中 故로 按之即起로대 此病在氣 故로 按其腹而不起요 腹色不變者는 寒氣在皮膚而脾土未傷也라하니라 ●李：整整은 鼓聲也라 寒氣客于皮膚하면 陽氣不行하야 病在氣分 故로 有聲如鼓하고 氣本無形 故로 不堅하고 氣無所不至 故로 腹大身盡腫而皮厚라 氣在膚間하야 按散者不能猝復 故로 窅而不起하고 皮厚 故로 腹色不變也라 ○黃：整整은 空洞如鼓聲也라 窅는 深也라 ○章：膚脹은 因陽虛로 寒氣客于皮膚하야 內無水邪로대 但是虛腫 故로 整整然不堅하며 其皮厚라 按其腹하면 窅而不起는 以氣虛不鼓也요 腹色不變은 則與水脹之皮薄色亮과 按之隨手而起者로 不同矣라 窅는 音츰니 坎陷之義라 ○語譯：窅는 其音受于窅라 馬叙倫이 云「說文」『目部』에 窅는 當云從目窅省聲이라 하고 「穴部」에 窅는 深也라하니 窅而不起는 是謂深陷不起라 徐大椿이 曰膚脹은 爲無形之氣 故로 按之不起라하니라 ○譯解：整整은 音츰이니 就是鼓聲으로 中空

였고, 景岳은 “寒氣가 皮膚에 侵犯했다는 것은 陽氣가 運行치 못하여 病이 氣分에 생긴 것이므로 북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고, 氣는 본래 형체가 없으므로 病所가 단단하지 않으며, 氣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배가 부풀려 커지고 온몸이 다 붓게 되는 것이다. 만일 病이 水氣에서 緣由한 것이라면 水氣가 있는 곳은 붓게 되지만, 水氣가 없는 곳은 붓지 않게 되니, 이것으로 水氣가 있는지 없는지를 辨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水氣가 있으면 皮膚가 얇으면서 潤氣가 나지만, 水氣가 없으면 皮膚가 두터워지게 된다. 寒氣가 皮膚의 腠理에 있는 경우에 손으로 눌러 붓은 곳을 흠어지게 하면 氣가 흠어져 빨리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누른 곳이 움푹해져 곧바로 올라오지 않게 된다. 배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皮膚가 두터워졌기 때문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위의 두 條文에서 손으로 배를 눌렀다 놓아 부은 곳이 손을 따라 올라오는 것은 水脹이고, 움푹해져 손을 따라 올라오지 않는 것은 氣脹이라고 했는데 진실로 그렇다. 그러나 氣囊(氣가 모여 생긴 浮腫)을 눌러 보아도 또한 손을 따라 올라오고, 또한 水氣가 肌肉에 있는 경우에 눌러보면 水氣가 흠어져 빨리 다시 모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糟囊(濕邪 등이 모여 생긴 浮腫)을 눌러보면 또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른 뒤에 손을 따라 올라오는 것과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水氣로 인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는 없다. 다만 疾病을 살펴봄에 그 皮膚가 두텁고 색깔이 푸르거나, 혹은 온몸이 다 붓거나, 혹은 부기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대부분 氣에 屬한 것이지만, 만일 皮膚가

而有聲의意思라 窅는 音츰니 深의意思라 窅而不起는 形容容深陷不起라

얇고 색깔이 潤澤하거나, 혹은 부어있는 곳의 경계가 분명하거나, 혹은 부기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 水氣에서 由來한 것이다.”⁷⁾고 하였고, 丹波·『校釋』·『綱目』에서는 “『論疾診尺』篇에서 ‘手足을 눌렀다 놓아도 움푹 들어가는 나오지 않는 病이 風水와 膚脹이다.’라고 했으니, 또한 本節과 같은 文章이다. 또 『金匱要略』에서는 ‘皮水는 그 脈이 역시 浮하고 밖으로 跗腫이 나타나며, 누르면 들어가고 惡風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手足을 누르면 들어가는 나오지 않는 病이 風水다.’라고 하였고, 『諸病源候論』에서는 ‘燥水는 水氣가 皮膚에 넘친 것을 말하는 데, 부어오른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隱隱하게 남아있어 무늬를 이룬 것이 燥水이고, 누르자마자 무늬가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濕水다.’라고 했으니, 이를 근거로 類推해보면 膚脹은 곧 『金匱要略』에서 말한 皮水·風水요 『諸病源候論』에서 말한 燥水인 것이다. 그러나 脹病에서는 부어 있는 곳을 손으로 눌렀다 놓았을 때 손을 따라 올라오는 것과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는 설에 구애받지 말고 마땅히 말처럼 실

7) 景岳: 鑿鑿⁸⁾은 鼓聲也라 寒氣客於皮膚之間者 陽氣不行하여 病在氣分 故로 有聲若鼓하고 氣本無形 故로 不堅하고 氣無所不至 故로 腹大身盡腫이라 若因於水하면 則有水處는 腫하고 無水處는 不腫하니 此爲可辨이라 然이나 有水則皮澤而薄하고 無水則皮厚하니라 鑿⁹⁾은 音空이라 寒氣在膚脹之間에 按散之면 則不能聚聚 故로 窅而不起라 腹色不變은 卽皮厚故也라 愚按此上兩條에 云以手按其腹하야 隨手而起者는 屬水하고 窅而不起者는 屬氣라하니 此固然也라 然이나 按氣囊者도 亦隨手而起하고 又水在肌肉之中에 按而散之면 粹不能聚하야 如按糟囊者도 亦窅而不起 故로 未可以起與不起爲水氣之辨이라 但當察 其皮厚色蒼하고 或一身盡腫하고 或自上而下者는 多屬氣하고 若皮薄澤하고 或腫有分界하고 或自下而上者는 多屬水也라 又風水膚脹義는 詳『脈色類』十八이라 窅는 音天니 深也라

지로 그러한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穀은 『玉篇』에서 ‘겉질로 속이 비어 있는 것이다.’고 했고 鑿字도 또한 鼓와 空을 합한 글자니, 아마도 가운데가 비었다는 뜻일지 모르나, 모든 注에서 북소리라 하였으니, 만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소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⁸⁾라고 하였다.

〔2〕鼓脹何如 腹脹身皆大 大與膚脹等也 色蒼黃 腹筋起 此其候也

楊·程은 “鼓脹에는 여섯 가지 특징이 있으니 네가지는 膚脹과 같고 다섯째는 腹部에 靑黃色이 나타나며 여섯째는 腹部에 脈絡이 나타나는 것이다.”⁹⁾고 하였고, 馬·李·張·黃·章은 “배가 부풀어오르고 온몸이 다 붓는데, 붓는 것이 膚脹과 같지만, 다만 배의 색깔이 蒼黃하고 腹筋이 突起한 것이 (鼓脹만의) 證候가 될 뿐이다. 살펴보건대 鼓脹과 膚脹은 손으로 누름에

8) 丹波: 『論疾診尺』篇에 云按其手足上하야 窅而不起者가 風水膚脹也라하니 亦與本節同이라 又『金匱要略』에 云皮水는 其脈亦浮하고 外證跗腫하며 按之沒指하고 不惡風이라하고 又云按其手足上하야 陷而不起者가 風水라하니라 『巢源』에 云燥水는 謂水氣溢于皮膚니 因令腫滿하야 以指盡肉上하면 則隱隱成文字者를 名曰燥水요 以指盡肉上하면 隨畫隨散하야 不成文字者를 名曰濕水라하니라 由此推之면 膚脹은 則『金匱』所謂皮水風水요 『巢源』所謂燥水也라 然이나 脹不可拘起與不起之說하고 當爲實驗之言也라 穀은 『玉篇』에 物皮空也라하니라 鑿字도 亦從鼓從空이니 蓋中空之義나 諸注爲鼓聲하니 豈有不堅而有聲之理乎아 ○校釋: 鑿⁹⁾은 鼓聲이나 別丹波元簡이 鑿字도 亦從鼓從空이니 蓋中空之義나 諸注爲鼓聲하니 豈有不堅而有聲之理乎아하니 蓋謂僅表示中空而無象聲之義니 可參이로대 暫從前意라 窅는 深의 意思라 窅而不起는 形容深陷不起라 ○綱目: 皮厚는 非謂皮膚本身變厚요 而是同水腫의 皮薄光澤相對而言이라

9) 楊: 次解鼓脹에 凡有六別하니 所由及候四種이 同於 膚脹하고 五者는 腹色靑黃하며 六者는 腹上脈絡見出이니 鼓脹之候에 有此六別也라 ○程: 色蒼黃 腹筋起는 腹壁에 有靑色脈絡이 突起如筋者라

손을 따라 올라오는가 올라오지 않는가를 말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모두 올라오지 않으니, 오직 腹筋이 突起된 것만으로 分別해야 한다. 또한 『素問·腹中論』에서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心腹이 脹滿함에 아침에는 飲食을 먹을 수 있으나 저녁에는 먹을 수 없으면 이것은 어떤 病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鼓脹病인데 治療함에 雞矢醴 一劑를 먹으면 (病이 나아감을) 알 수 있고 二劑를 먹으면 낫게 됩니다.’고 했으니, 이 處方이 과연 기이한 효험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¹⁰⁾고 하였고, 景岳은 “배가 부풀어오르고 몸이 다 붓는 것은 上文의 膚脹과 證候가 같다. 색깔이 蒼黃한 것은 또한 皮膚가 두텁고 腹部의 색깔이 變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지만, 腹筋이 점차 突起되어 (膚脹과) 다르게 된다. 이것도 또한 病이 氣分에 있는 것이므로 鼓脹이라 한 것이니 鼓脹의 뜻은 앞의 五十五에도 있다.”¹¹⁾고 하였고, 『語譯』·『綱目』에서는 “色蒼黃은 全身의 皮膚에 靑黃色이 나타난 것이다.”¹²⁾고 하였다.

- 10) 馬: 此는 言鼓脹之候也라 腹脹으로 而周身皆大與腹脹相等이나 但其色蒼黃하고 腹中筋起爲候耳라 按컨대 鼓脹與腹脹等에 不言按之起與不起나 當亦是不起者나 惟其腹筋起者爲辨이라 又按컨대 『素問·腹中論』에 黃帝曰 有病心腹滿에 旦食則不能暮食하면 名爲何病이오 岐伯이 曰名爲鼓脹이니 治之에 以雞矢醴一劑知요 二劑已라하니 此方果有奇驗云이라 ○李: 鼓脹 膚脹은 大同小異나 只色蒼黃腹筋起爲別耳이라 ○張: 余氏曰 此는 寒氣乘于空郭之中이니 所謂藏寒生滿病也라 藏寒者는 水藏之寒氣盛하고 而火土之氣衰也라 身皆大者는 脾主肌肉也라 色蒼黃과 筋起者는 土敗而木氣乘之也라하니라 ○黃: 色蒼黃과 腹筋起는 肝木剋脾土也라 ○章: 此는 由內傷肝脾 故로 色靑黃并現하고 腹脹而筋起하며 與水脹膚脹으로 因各不同하니 其證亦異요 如後條에 旦食不能暮食하고 用雞矢醴者로 相類라
- 11) 景岳: 腹脹身皆大는 與上文膚脹者로 證同이라 色蒼黃者는 亦皮厚腹色不變之義나 但腹有筋起하야 爲稍異耳라 蓋此亦病在氣分 故로 名鼓脹也요 又鼓脹義는 見前五十五라

〔3〕腸覃 何如 寒氣客于腸外 與衛氣相搏 氣不得營 因有所繫 癖而內著 惡氣乃起 瘕肉乃生 其始生也 大如鵝卵 稍以益大 至其成 如懷子之狀 按之則堅 推之則移 月事以時下 此其候也

楊·馬·景岳·李·黃은 “覃은 蔓延되고 布散되어 깊어지는 것이다. 寒氣가 腸外에 侵犯했는데 이때 衛氣가 이곳을 지나다가 寒氣와 섞이게 되면 運行하지 못하고 蓄積되어 腸外에 머물러 癥着되기 때문에 積塊가 발생하고 군더더기 살이 생겨 病이 날로 심해지게 된다. 瘕肉은 惡肉이다. 離歲는 해를 넘긴다는 뜻이다. 寒邪가 腸外에 侵犯했지만 邪氣가 胞中에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月經에 異常이 없는 것인데, 이런 까닭으로 腸覃이 血分에 생긴 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개 汁沫이 凝聚되어 생긴 것인데, 이것이 바로 腸覃의 證候다.”¹³⁾고 하였고, 張

- 12) 語譯: 色蒼黃은 皮膚呈現靑黃色이라 ○綱目: 色蒼黃은 指全身膚色靑黃晦滯라
- 13) 楊: 次解腸覃은 水停聚也라 腸覃에 凡有六別하니 一者는 得之所由가 謂寒客於腸外하야 與衛氣合하야 癥而爲肉요 二者는 所生形之大小요 三者는 成病久近에 久者는 或可歷於年歲요 四者는 按之堅硬이요 五者는 推之可移요 六者는 月經時下니 腸覃所由與狀에 有斯六種也라 ○馬: 此는 言腸覃之證也라 寒氣客於腸之外하야 衛氣有時而入하야 寒氣與衛氣相搏하면 衛氣不得營運하야 彼此相繫하야 癖而內著於腸하야 致使惡氣從茲而起하야 瘕肉乃生이라 其始生也 大如鵝卵이라 가 及其成也하야 如懷子之狀하고 久者는 歲以度歲로 대 非止一歲요 用手按之則堅하고 推之則移하며 附於腸外而不在胞中 故로 月事以時而下하니 此腸覃之爲候也라 ●景岳: 覃은 延布而深也라 寒氣與衛氣相搏하면 則蓄積不行하야 留於腸外하야 有所繫著 故로 癥積起하고 瘕肉生하야 病日以成矣라 瘕肉은 惡肉也라 離歲는 越歲也라 寒邪客於腸外하되 不在胞中 故로 無妨於月事하니 其非血病을 可知요 蓋由汁沫所聚而生이니 此腸覃之候也라 ○李: 覃之爲義는 延布而深也라 寒氣薄衛하면 滯而不行하야 留於腸外 故로 癥積起하고 瘕

은 “이는 寒氣가 腸外에 侵犯하여 腸覃이 생긴 것이다. 무릇 衛氣는 밤에 臟腑의 募原으로 循行하여 陰分을 스물 다섯 번 周行하는데, 이때 寒氣가 腸外에 侵犯하여 衛氣와 섞이게 되면 衛氣가 營行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적당한 곳에 凝聚되어 안으로 癰着되는 것은 無形의 邪氣가 腸外의 腹腔에 相搏하여 有形의 膏肓·募原에 癰着된 것이니 血肉에서 惡氣가 발생되고, 이로 말미암아 굳더디기 살이 생겨 腸覃이 되는 것이다. 病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積聚가 臟腑의 脂膜에서 떨어져 마치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르고, 손으로 눌러보면 積이 탄탄하고 밀면 積이 움직이며, 邪氣가 腸外에 侵犯한 것이니 臟腑를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月經이 때맞추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腸覃의 證候다.”¹⁴⁾고 하였고, 丹波·『譯解』·『語譯』·『校釋』·程은 “覃의 뜻이 상세하지 않으나, 아마도 覃字는 蕈(버섯)과 같은 글자인 것 같은데, 음은 慈任切이다. 『唐韻』에서 ‘버섯은 나무에서 생긴다.’고 했고, 또한 『玉篇』에서 ‘버섯은 땅에서 자라는 菌類다.’고 했다. 腸 속의 찌꺼기가 凝聚되어 瘰肉이 생기는데, 이것은 마치 濕氣가 蒸鬱해 땅과 나무에 버섯이 생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腸覃이라 한 것 같다. 『正字通方書』에

肉生也라 離歲는 越歲也라 邪在腸外하되 不在胞中 故로 無妨于月事하니 皆由汁沫所聚로 非血病을 可知也라 ○黃: 營은 行也라 繫는 戀不消也라 癖而內著은 痞結而留著也라 惡氣乃起는 滯氣因阻而成積也라 瘰肉은 瘰肉也라 離歲는 逾歲也라

14) 張: 此는 寒氣客于腸外而生覃也라 夫衛氣는 夜循藏府之募原하야 行陰二十五度하니 寒氣客于腸外하야 與衛氣相搏하면 則衛氣不得營行矣라 因有所繫癖而內著者는 此無形之氣가 相搏于腸外空郭之中하야 而著于有形之膏肓也니 是以로 血肉之惡氣乃起하고 瘰肉乃生하야 而成此覃이라 久則離于藏府之脂膜하야 如懷子之虛懸하며 按之則堅하고 推之則移하야 不涉於藏府 故로 月事以時下하니 此其候也라

‘코안에 생긴 사마귀(뽕루지)가 瘰肉이다.’라고 하니 또한 이는 瘰菌을 말하는 것이며, 코는 숨 쉬는 곳이기 때문에 (瘰字는) 息을 쫓아 쓴 것이니, 비록 거기에서 말한 瘰菌은 腸覃의 뜻과 符合되지만, 다만 鼻息으로써 瘰를 풀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說文』에서 ‘瘰은 寄肉이다.’라고 하니 이는 곧 惡肉이 자란다는 뜻인데, 『甲乙』에서 息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다. 離는 歷의 뜻으로 離歲는 해를 넘긴다는 것이니, 『詩·小雅·小宛疏』에 그 例가 있다. 腸覃의 治方에는 陳氏의 『三因極一病證方論』에 烏喙丸이 있고, 羅氏의 『衛生寶鑑』에 晞露丸과 見院丸 등이 있으니, 마땅히 모두 參考해야 한다.”¹⁵⁾

15) 丹波: 覃義未詳이나 蓋此與蕈同하니 慈任切이라 『唐韻』에 菌生木上이라고 하고 又『玉篇』에 覃은 地菌也라 하니 腸中垢滓가 凝聚生瘰肉이 猶濕氣蒸鬱하야 生覃於土木 故로 謂腸覃이라 『正字通方書』에 鼻疣曰瘰肉이라 하니 亦謂之瘰菌이며 鼻通息 故로 從息하니 瘰菌은 乃與腸覃之義符로대 但以鼻息釋瘰者는 誤라 『說文』에 瘰은 寄肉也라 하니 卽生息一肉之義러니 『甲乙』作息肉으로 可證이라 離歲는 歷歲也며 離離歷이니 見詩小雅小宛疏라 腸覃治方은 陳氏『三因』에 有烏喙丸이오 羅氏『衛生寶鑑』에 有晞露丸과 見院丸等이니 當并考라 ○譯解: 腸覃은 病名이라 覃은 音盡이나 古與蕈通하니 因腸外生有如菌狀의 惡肉 故로 稱腸覃이라 『玉篇』에 覃은 地菌也라 하니 腸中垢滓가 凝聚生瘰肉하니 猶濕氣蒸鬱하야 生覃於土木 故로 稱腸覃이라 瘰은 音息이니 就是惡肉이라 離는 就是越過니 離歲는 就是已過了幾年的意思라 ○語譯: 孫鼎宜曰 覃讀爲蕈이니 音尋이라 『玉篇』에 覃은 地菌也라 하니 腸覃附腸而生如蕈하야 俗謂之腸菌이라 하니라 榮與營은 雖通用이나 但依『太素』作營하면 義更顯豁이요 營은 謂運行이라 『廣雅』『釋訓』에 營營은 往來也라 하니 氣不得榮은 是謂氣不得運行이라 『釋名·釋衣服』에 系는 繫也니 相聯系也라 하니 因有所繫는 是謂寒氣衛氣相互聯繫而不得散이라 癖은 依校文應作瘰니 瘰而內著은 是謂腹中結塊가 在離面逐漸顯露라 惡氣는 病害汚穢之氣라 『左傳』成公六年杜注에 惡은 垢穢라 하니 瘰肉은 惡肉이라 稍以는 漸則이라 尤怡曰 瘰肉蔓延하야 與腸相着하야 瘰肉漸大하면 則消之非易 故로 曰狀如懷子하고 久者 離歲라 하니라 ○校釋: 腸覃은 病名이니 指附腸而生之

고 하였고, 章은 “腸覃은 寒氣가 腸外에 侵犯함으로 달미암아 발생하는데, 이곳은 몸의 안에 있고 正氣와 衛氣가 出入하는 곳으로 寒邪가 이곳에 들어와 衛氣가 섞이게 되면 이로 인해 積聚가 結成되고 惡氣가 발생되어 瘕肉이 생기게 된다. 발생하여 시일이 오래되면 크기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커지고, 손으로 눌러보면 積이 탄탄하고 손으로 밀면 積이 움직인다. 그 積聚가 氣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血脈은 막히지 않아 流通되어 月經이 때맞추어 나오게 되는데, 이는 衛氣와 結滯된 것이지만, 衛氣가 脈外로 運行하기 때문에 月經에 異常이 없는 것이다.”¹⁶⁾ 고 하였다.

〔4〕石瘕何如 石瘕 生於胞中 寒氣客於子門
子門閉塞 氣不得通 惡血當寫不寫 衄
以留止 日以益大 狀如懷子 月事不以
時下 皆生于女子 可導而下

楊·馬·景岳·李·張·黃·章·『語譯』·程은 “胞는 곧 子宮인데, 男女에 다 있다. 남자에게 있는 것을 精室이라 하고, 여자에게 있는 것을 血海라 한다. 子門은 곧 子宮의 門이요 衄는 엉기어 썩은 피다. 子門이 閉塞되면 어혈이 머물러 凝聚된 것이 돌과 같이 堅固하기 때문에 石瘕라 한 것이다. 月經이 제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 病이 오직 女子에게만 생기기 때문이니 衄血을 없애는 藥劑로 下해야 한다. 本篇의 맨 처음에 黃帝께서 石水를 質問했으나 原文에 對

腫物이라 瘕肉은 惡肉이라 ○程: 腸覃은 病名이라 指附腸而生的腫物이니 如藟之附木而生이라

16) 章: 腸覃은 始由寒氣客於腸外하니 是在軀殼之內요 正衛氣出入之區니 寒邪與氣相搏하야 因而結成癥積하면 惡氣乃起하야 瘕肉乃生이라 歲久에 大如懷子하고 按之堅而推之移하야 其結在氣分 故로 血脈流通하야 月事仍應時而下하니 蓋與衛氣所結로 衛行脈外故也라

답이 없는 것으로 살펴볼 때 반드시 이에 대한 내용이 遺失된 것이다. 「陰陽別論」을 살펴보면 ‘陰陽이 結邪하야 多陰少陽한 것이 石水인데 少腹이 붓는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陰陽別論」에서 말한 石水다.¹⁷⁾”고 하였고, 丹波는 “『說

17) 楊: 次解石瘕에 凡有四別하니 一者는 瘕住所在요 二者는 得之所由가 謂寒氣客子門之中하야 惡血이 凝聚不寫所致요 三者는 石瘕大小形이요 四者는 月經不以時下라 石瘕所由與狀에 有斯四種이니 石水一種은 缺而不解也라 ○馬: 此는 言石瘕之證也라 石瘕는 必生於胞中하니 正以寒氣客於子門하야 子門閉塞하면 氣不得通於外하니 惡血之在內者를 當瀉不瀉라 惡血者를 名爲衄血이니 留止于胞中하면 日以益大하야 其狀亦如懷子라 惟石瘕生于胞中이로대 而不在腸外 故로 月事不以時下하니 此其所以爲候也라 然이나 腸覃石瘕는 皆生于女子니 治之者는 可導而下之라 按컨대 腸覃은 由寒氣客於腸外而始요 石瘕는 由寒氣客於子門而始니 元時羅謙夫著『衛生寶鑑』에 有晞露丸과 見腕丸等法하야 以治二病이라 ●景岳: 胞는 卽子宮也니 男女皆有之라 在男을 謂之精室이오 在女를 謂之血海라 子門은 卽子宮之門也니 義詳三焦包絡命門辨中하니 見附翼三卷이라 衄는 凝敗之血也니 子門이 閉塞則衄血留止하야 其堅如石 故로 曰石瘕라 月事不以時下는 惟女子有之也 故로 可以導血之劑로 下之라 按컨대 篇首에 帝有石水之問이로대 而此下無答하니 必闕失也라 考之『陰陽別論』컨대 曰陰陽結邪하야 多陰少陽을 曰石水니 少腹腫이라하니 其義卽此요 詳見本類前六이라 衄는 鋪杯切이라 ○李: 衄는 敗血凝聚也라 子門閉塞하면 衄血留止하야 其堅如石 故로 名石瘕라 月事不以時下는 無經可知也니 可以導血之劑로 下之라 按컨대 腸覃石瘕에 皆言月事하니 則此二證이 惟女人有之 故로 曰皆生于女子也라 ○張: 余氏曰 胞中은 血海也니 在少腹內라 男子之血은 上脣口而生鬚鬚하되 女子는 月事以時下니 寒氣客於子門하면 則子門閉하고 而胞中之血을 當瀉不瀉하야 留積而成衄塊하면 日以益大하야 狀如懷子요 血留胞中 故로 月事不以時下라 覃瘕는 皆生于女子니 治之者可導下之라하니라 ○黃: 衄는 血塊也라 ○章: 石瘕는 由寒氣客於子門하야 假血成形하야 結如石堅 故로 名石瘕요 而在胞脈之中 故로 狀如懷子니 俗所謂鬼胎也라 此以惡血當瀉不瀉하야 瘀結而月事不通일새니 與上之腸覃으로 有氣血之分이나 而皆生于女子하니 當通利導之而下也라 帝所問尚有石水一證이로대 岐伯無答하니 義詳前卷諸風證中이라 ○語譯: 說文尸部에 瘕는 女病이라하고 瘕는 本子宮腫痛之名이

文』에서 ‘衃는 凝血이다.’고 했으니 『五藏生成篇』의 ‘赤如衃血死’가 바로 이것이다. 導는 坐導藥을 말한다. 그 病이 胞中에 있으므로 坐藥을 써서 下導시켜야 하니, 景岳의 注는 잘못된 것이다.¹⁸⁾”고 하였고, 『譯解』에서는 “胞는 女子의 子宮을 말한 것이니, 胞中은 곧 子宮內다. 『說文』에서 ‘衃는 凝血이다.’고 했으니, 衃以留止는 바로 瘀血이 자궁 내에 停留됨을 뜻한 것이다. 可導而下는 導血下行하는 針法을 써서 治療하는 것이다.”¹⁹⁾고 하였다.

【考 察】

〔校勘에 對한 考察〕

‘鑿鑿然不堅’은 『太素』와 『甲乙』과 『外臺』에는 모두 ‘穀穀然不堅’으로 되어있고, 『千金』에는 ‘穀穀然而堅’으로 되어 있으며, 『普濟方』에는 ‘敦敦然而堅’으로 되어 있는데, ‘穀’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穀’은 ‘潰’이 本字인데, 뜻은 ‘脹

論’의 ‘願聞脹形’節에 나오는 ‘三焦脹者 氣滿於皮膚中 輕輕然而不堅’에서 ‘輕輕’에 대해 『太素』, 『脈經』, 『甲乙』에는 모두 ‘穀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大與膚脹等也’는 『甲乙』에 ‘如膚脹等’으로 되어 있는데, ‘大’字는 윗 문단의 영향을 받은 衍文인 것 같으니 마땅히 『甲乙』에 의거 없애야 한다.

‘與衛氣相搏’에 대해 『千金』에서는 ‘與胃氣相搏’으로, 『外臺』에서는 ‘與衛氣相搏’으로, 『保命集』에는 ‘與衛氣相搏’으로, 『普濟方』에는 ‘與胃氣相搏’으로 되어 있으나 本文의 내용에는 胃와 관련된 것이 없으며 또한 ‘搏’, ‘薄’, ‘撲’은 醫書에서 통용하고 있으므로 原文이 옳다.

‘癰而內著’은 『太素』, 『甲乙』, 『千金』, 『普濟方』에는 모두 ‘癰而內著’으로 되어 있는데, ‘癰’은 積聚 가운데 兩脇間에 있는 것이고 ‘癰’은 腹中에 생기는 積聚 가운데 모였다 흩어졌다하는 것이니, 本節은 腸覃에 관한 것이므로 ‘癰而內著’로 하는 것이 옳다.

‘至其成’은 『太素』, 『甲乙』, 『千金』, 『外臺』에 모두 ‘至其成也’로 되어있고, 『普濟方』에는 ‘及其成也’로 되어 있는데, 원래 ‘也’字가 없으나 위의 ‘其始生也’와 對比가 되므로 ‘至其成也’로 하여야 한다.

‘久者離歲’는 『甲乙』, 『千金』, 『外臺』, 『普濟方』에 모두 ‘久者離歲月’로 되어 있고, 『保命集』에는 ‘久離歲’로 되어 있으나, 『周本』과 『張注本』에는 모두 ‘歲’字가 ‘臟’字로 되어 있고 原文에서 ‘按之則堅 推之則移’라고 한 것과 張의 이에 대

니 引申之則凡腹中有結塊者 亦謂之癰라 羅天益이 曰 膀胱은 爲津液之府로 氣化則能出焉이니 今寒氣客於子門하면 則氣閉塞而不流하야 衃以留止하야 結硬如石하니 是名石瘕라하니라 王冰이 曰衃血은 謂敗惡凝聚之血이니 色赤黑也라하니라 下는 謂去掉라 『周禮』‘司民’鄭注에 下는 猶去也라하고 尤怡가 曰癰는 假也니 假血成形하야 積于胞中이니 血積易去 故曰 可導而下라하니라 ○程: 石水는 病名이라 本篇에 對石水有問이로대 而無答하니 當有缺文이라 石瘕는 爲胞宮內之癰塊라

18) 丹波: 『說文』에 衃는 凝血也라하니 『五藏生成篇』의 赤如衃血死가 是也라 導는 謂坐導藥이라 其病在胞中 故曰 用坐藥以導下之니 張注는 非라 ○校釋: 可導而下에 有兩種解釋이니 一種은 認爲是用導血之劑下之요 別一種解釋은 認爲導是坐導藥이니 其病在胞中 故曰 用坐藥以導下之라

19) 譯解: 胞는 指女子의 子宮이니 胞中은 卽子宮內라 衃는 音胚라 『說文』에 衃는 凝血也라하니 衃以留止는 就是瘀血停留在內의 意思라 可導而下는 可用導血下行 穴法以治之라

한 注의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離歲’는 ‘離臟’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腸覃 節의 ‘月事以時下’는 『太素』에는 ‘月事以時’로, 『甲乙』, 『千金』, 『普濟方』에는 모두 ‘月事時下’로, 『外臺』, 『保命集』에는 모두 ‘月事不以時下’로 되어 있는데, 腸覃은 ‘寒氣客於腸外 與衛氣相搏’하여 생기는 것으로 血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月事以時下’로 보아야 한다.

石瘕 節의 ‘月事不以時下’는 『保命集』에 ‘月事不時’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熊本』과 『日抄本』에서는 ‘下’를 ‘不’로 보고 밑에 붙여서 ‘不皆生於女子’로 읽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나 한문의 문법으로 보나 그대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較註에 對한 考察]

‘瘕瘕’에 대하여 景岳·馬·李·黃·『語譯』에서는 두드리면 북소리처럼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았으나, 丹波·『校釋』·『綱目』에서는 脹病을 虛脹과 實脹으로 구별하여 虛脹은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實脹은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북처럼 속이 비어 있는 형상으로 보았으니 옳다고 본다.

‘窅而不起’에 대하여 楊·馬·張·黃·章·丹波 등은 氣虛로 인한 氣脹이기 때문에 눌렀다 놓아도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여 膚脹을 氣脹으로 보았고, 景岳은 눌렀다 놓아 바로 올라오는 것은 水에 속하고 바로 올라오지 않는 것은 氣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起·不起만으로 氣·水를 논할 수 없다고 하여 膚脹이 水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요즈음 醫學界에서는 浮腫을 神經性 浮腫과 水液性 浮腫으로 나누어 前者를 氣腫, 後者를 水腫으로 보아 辨證하고 治療하고 있으니 景岳의 浮腫에 대한 감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皮厚’에 대하여 楊·馬·張·李는 膚脹은 몸 전체가 부어 피부가 두터워지는 것으로 보았지만, 景岳·章·丹波·『校釋』·『綱目』에서는 붓는 곳은 피부가 얇고 빛이 나므로 여기에서 皮厚의 의미는 붓지 않는 곳의 피부가 부은 곳에 비하여 두텁다는 의미로 보았으니 후자가 옳다고 생각한다.

‘色蒼黃 腹筋起’에 대하여 楊·程은 ‘腹壁에 青色의 脈絡이 筋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고, 馬·張·李·黃·章은 ‘腫處의 색이 靑黃色이고 腹部의 筋이 나타나 보인다’고 하여 두 文句로 보았으며, 景岳은 ‘色蒼黃’을 膚脹에서 말하는 ‘皮厚腹色不變之義’로 보고 단지 腹筋이 나타나는 것으로 膚脹과 鼓脹의 구별점을 삼았고, 『語譯』·『綱目』에서는 ‘色蒼黃’을 전신의 피부가 靑黃色을 띠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病證은 黑疸을 말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색이 나타나는 변화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腸覃’의 音에 대하여 丹波는 覃은 葷으로 통하니 ‘慈任切’이라 하였고, 『譯解』에서는 ‘音盡’으로 하였으며, 孫鼎宜는 ‘音尋’이라고 하였는데, 景岳 등의 腸覃에 대한 注의 내용에서 ‘覃 延布而深也’라 하고, 『唐韻』에 ‘葷 菌生木上’이라 하고, 『玉篇』에 ‘葷 地菌也’라 하였으며, 康熙字典

에 ‘臍은 臍과 통한다’고 한 것을 볼 때 脘을 ‘腸臍(장심)’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久者離歲’에 대하여 楊은 ‘久者 可歷於年歲’, 馬는 ‘久者 歲以度歲’, 景岳·李는 ‘久者 越歲也’, 黃은 ‘久者 逾歲也’라 하여 모두 ‘오래된 것은 해를 넘긴 것’으로 보았고, 『張注本』에는 원문이 ‘離臟’으로 되어 있어 張은 ‘不涉於藏府’로 보았는데, 『周本』에도 ‘歲’字가 ‘臟’字로 되어 있고 原文 내용에도 ‘按之則堅 推之則移’로 되어 있으니 張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皆生於女子 可導而下’에 대하여 몇몇 注家들은 이 文句가 石瘕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고 ‘可導而下’에 대하여 景岳·李·黃 등은 ‘可以導血之劑下之’라 하였고, 丹波·『校釋』은 ‘用坐藥以導下之’라 하였고, 『譯解』는 ‘可用導血下行穴法以治之’라 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馬·張·章은 모두 腸臍과 石瘕에 대한 치법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石瘕 節의 내용에는 하나의 病證만을 논하고 있으므로 ‘皆’字를 쓸 필요가 없으며 臍 節에서 論한 腸臍도 여자에게만 발생하는 病證이므로 이 文句는 腸臍·石瘕의 治法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馬·張·章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또한 뒤의 3章에서 ‘黃帝曰 膚脹鼓脹 可刺邪’라고 하여 膚脹·鼓脹에 대한 治法만을 질문하고 腸臍·石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語譯』은 이에 대해 “孫鼎宜曰 水輸는 有五十穴이요 腸臍石瘕는 已云可導而下하니 故로 獨舉此二者問也라하니라”라고 하여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楊·景岳·黃 등은 1章에서 ‘黃帝問於岐伯曰 水與膚脹鼓脹腸臍石瘕石水 何以別之’라고 하여

石水에 대한 것도 묻고 있는데 本文에 石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石瘕 節아래에 闕文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는 內經의 編纂科程에서 石水의 내용이 脫漏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歷代의 醫書를 참조하여 볼 때 『諸病源候論』에 나타나는 위의 4 證의 내용이 『內經』이나 『金匱』의 原文을 그대로 傳寫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거²⁰⁾ 보충할 수 있다.

巢元方の 『諸病源候論』에서는 ‘腎主水 腎虛則水氣妄行 不依經絡 停聚結在臍間 少腹腫大革如石 故云石水 其候 引脇下脹痛而不喘是也. 脈沈者 名曰石水. 尺脈微大 亦爲石水. 腫起臍下至小腹 腫脹然上至胃脘 則死不治.’라 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膚脹은 어떻게 候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膚脹은 寒氣가 皮膚의 사이에 侵犯하여 북소리와 같이 소리가 나며, 부은 곳이 탄탄하지 않으며, 배가 부풀어 커지고 몸이 다 부으며, 皮膚가 두터워 지는데 그 배를 손으로 눌러보면 움푹 들어가지 않지만 배의 색깔은 變함이 없으니 이것이 그 證候입니다.

20) 『素問·陰陽類論』: 三陽獨至 期在石水.

『素問·陰陽別論』: 陰陽結斜 多陰少陽 曰石水 少腹腫

『素問·大奇論』: 腎肝并沈爲石水

『靈樞·邪氣臟腑病形』: 微大爲石水 起齊以下至少腹 腫脹然 上至胃脘 死不治

『金匱·水氣病脈證治』: 石水其脈自沈 外證腹滿不喘

鼓脹은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배가 부풀어오르고 몸이 다腫大되는데,腫大됨이 膚脹과 같지만, 색깔이蒼黃하고 腹筋이 突起되니 이것이 그 證候입니다.

腸覃은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寒氣가 腸外에 侵犯하여 衛氣와 相搏하면 氣가 運行하지 못하여 (寒氣와 衛氣가) 적당한 곳에 凝聚되어 안으로 유착되어 惡氣가 발생되어 굳어지기 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鷄卵과 같은 크기지만 점차 더욱 커져 그 病이 이루어짐에 이르러서는 마치 임신한 것과 같이 커지고, 손으로 눌러보면 탄탄하며 오래된 것은 臍에 붙어있지 않아 밀면 움직이며 月經은 제때에 나오니 이것이 그 證候입니다.

石瘕는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石瘕는 胞中에서 생기는 것이니 寒氣가 子門에 侵犯했기 때문입니다. 子門이 閉塞되어 氣가 疏通되지 못하고 (疏通되지 못해 쌓임) 나쁜 피를 마땅히 瀉해야 하는데 瀉하지 못하여 瘀血이 (胞中에) 쌓여 날로 더욱 커져 모양이 임신한 것처럼 커지고 月經이 제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腸覃·石瘕는) 모두 女子에게만 생기는 病이니 導下시켜야 합니다.

第三章. 膚脹·鼓脹의 治法

【原文】

黃帝曰¹⁾ 膚脹鼓脹을 可刺邪⁽¹⁾아

岐伯²⁾이 曰先寫其脹之血絡³⁾하고 後調其經⁴⁾하고 刺去其血絡也⁵⁾니이다

【校勘】

1) 黃帝曰:『甲乙』卷八 第四에는 '曰'로 되어 있다.

2) 岐伯:『甲乙』卷八 第四에는 이 글자가 없다.

3) 先寫其脹之血絡:『太素·脹論』와『甲乙』卷八 第四와『千金』卷二十一 第四 및『外臺·水腫門』에는 모두 '先刺其腹之血絡'으로 되어 있다.

4) 後調其經:『保命集·腫脹論』에는 '復調其經'으로,『張馬合本』에는 '先調其經'으로 되어 있다.

5) 刺去其血絡也:『太素·脹論』과『外臺·水腫門』에는 모두 '亦刺去其血脈'으로,『千金』卷二十一 第四에는 '刺去其血脈'으로,『甲乙』卷八 第四에는 '亦刺去其血脈也黃帝曰善'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邪: 耶也, 어조사 야

【校註】

膚脹鼓脹 可刺邪 先寫其脹之血絡 後調其經 刺去其血絡也

楊·馬·黃·程·『語譯』·『綱目』에서는 "이것은 膚脹과 鼓脹을 刺鍼하는 法에 對하여 말한 것이다. 膚脹과 鼓脹에는 모두 血絡이 있으니 먼저 血絡을 瀉한 뒤에 마땅히 어느 經에 血絡이 생겼는가에 따라 調治해야 하고, 그 血絡이 다시 생긴 것도 또한 마땅히 재차 刺鍼하여 없애야 한다."²¹⁾고 하였고, 景岳은 "먼저 膚脹·鼓

21) 楊: 腸覃과 石瘕二病은 皆婦人病也라 水病엔 刺而去之로대 腸覃과 石瘕엔 可以鍼刺導而下之라하니 未知 膚鼓二脹可刺已不아 先寫其血絡하야 以去惡血하고 後調其經하며 亦去血絡也라 ●馬: 此는 言刺膚脹鼓脹之法也라 二脹皆有血絡하니 須先瀉之하고 後當分經以

脹의 血絡을 瀉한다는 것은 虛實을 막론하고 血絡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반드시 먼저 瀉한 뒤에 虛實에 따라 補瀉하여 그 經脈을 調和시키는 것이다. 刺鍼하여 血絡을 없앤다는 것은 곧 血絡이 보이면 먼저 瀉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本篇을 살펴보면 上文에서 水로부터 아래로 여섯 가지 證候를 말했지만, 여기에서 오직 두 證候의 刺法만으로 질문한 것은 水俞 五十七穴이 이미 「水熱穴論」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 膚脹과 鼓脹만을 말한 것은 나머지 다섯 證候를 겸해 총괄하여 말한 것이니 말이 비록 간단하지만 水脹 전체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²²⁾고 하였다.

【考 察】

〔校勘에 對한 考察〕

‘先瀉其脹之血絡’은 『太素』, 『甲乙』, 『千金』,

『外臺』에 모두 ‘先刺其腹之血絡’으로 되어 있는데 2章의 膚脹·鼓脹 節에서 그 病證에 대해 膚脹은 ‘腹身大盡腫’로, 鼓脹은 ‘腹脹身皆大’로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脹이 발생하는 부위는 결국 腹部를 말하므로 어느 것으로 보나 문맥상 아무 이상이 없다.

‘後調其經’은 『保命集』에는 ‘復調其經’으로, 『張馬合本』에는 ‘先調其經’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文句가 ‘先瀉其脹之血絡’으로 되어 있으니 원문대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刺去其血絡也’는 『太素』, 『外臺』에는 모두 ‘亦刺其血脈’으로, 『千金』에는 ‘刺去其血脈’으로, 『甲乙』에는 ‘亦刺去其血脈也黃帝曰善’으로 되어 있으며, 『語譯』과 『校釋』에 모두 “‘去’字는 아마도 衍文인 것 같다. 『醫壘元戎·卷八』 引用文에도 ‘去’字가 없으니 이 句節은 마땅히 『太素』에 의거하여 ‘亦刺其血脈’으로 해야 앞 구절의 ‘先瀉’와 對句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較註에 對한 考察〕

‘先瀉其脹之血絡 後調其經 刺去其血絡也’에 대하여 楊·馬·張·黃·程·『語譯』·『綱目』에서 이는 다른 脹病에 대한 전체적인 治法이 아니고 단지 膚脹과 鼓脹에 대한 治法으로 인식하였고, 景岳은 다른 水病에 대해서는 「水熱穴論」에 이미 水俞 五十七穴을 논하였기 때문에 膚脹과 鼓脹의 治法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모든 水病을 通治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2章 膚脹·鼓脹의 節에서는 治法을 논하지 않고 腸覃·石瘕 節에서는 ‘可導而下’라고 治法을 논하고 있는 것에 대해 黃帝께서

調之하며 其有血絡에 又當再刺去之可也라 ○張: 余氏曰 膚脹者는 寒氣客于外요 鼓脹者는 寒氣客于內니 故로 先瀉其脹之血絡하고 後調其經하며 刺去其血絡이라 蓋先瀉其外하고 後調其內하야 而復治其外하니 外內之相通也라하니라 任氏曰 腸覃石瘕는 乃有形之血積이니 可從氣分而導之요 膚脹鼓脹은 乃無形之氣脹이니 可從血絡而瀉之면 血氣之相通也라하니라 ○黃: 瀉其血絡은 工在疾瀉也요 後調其經은 虛補而實瀉也라 ○程: 瀉其脹之血絡은 爲刺脹之血絡而放出惡血이라 ○語譯: 孫鼎宜曰 水輪는 有五十七穴이요 腸覃石瘕는 已云可導而下하니 故로 獨舉此二者問也라하니라 ○綱目: 亦刺去其血脈也는 也要通過鍼刺하야 以祛除脈中淤積之血이라 『靈樞·小鍼解』에 宛陳則除之者는 去血脈也라 하니라

22) 景岳: 先瀉其脹之血絡은 謂無論虛實하고 凡有血絡之外見者를 必先瀉之而後에 因虛實以調其經也라 刺去其血絡은 卽重明先瀉之義라 按本篇컨대 自水而下로 所言者가 凡六證 而此에 獨以二證之刺爲問者는 蓋水俞五十七穴이 已詳於「水熱穴論」故로 不必再問이라 此에 云膚脹鼓脹者는 蓋兼五證而統言之니 辭雖簡이나 而意則在也라

의문을 가지고 재차 물은 것이므로 이것을 脹病 전체의 治法이라고 주장하는 景岳의 견해는 옳지 못하다.

後代에 여러 醫家들이 「水脹」篇의 내용을 연구하여 膚脹·鼓脹·腸覃·石瘕에 대한 治方을 밝혀 놓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살펴보면 膚脹에는 加味枳朮丸, 木香流氣飲을 쓰며, 鼓脹에는 先脹後喘일 경우 二陳湯, 先喘後脹일 경우 寧肺湯, 下焦虛寒으로 발생한 경우 壯原湯을 쓰며 이외는 調中健脾湯을 쓴다. 腸覃에는 보통 晞露丸, 木香通氣散을 쓰는데 壯盛한 자에게는 四製香附丸을 常服시키거나 桂枝桃仁湯을 쓰며, 石瘕에는 溫經湯, 見睨丸, 和血通經湯을 쓰고, 石水에는 越婢加朮湯이나 眞武湯을 쓰는데 四肢細瘦 腹獨腫大에는 大海蛤丸을, 腹部緊急 大小便澀에는 檳榔散을 쓴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膚脹과 鼓脹을 (어떻게) 刺鍼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먼저 그 脹의 血絡을 瀉한 뒤에, 그 經을 調治하고, 刺鍼하여 그 血絡을 없애야 합니다.

IV. 意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시기를, 水病과 膚脹과 鼓脹과 腸覃과 石瘕와 石水是 어떻게 다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水病이 처음 생길 때에는 눈 아래가 막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처럼 약

간 부으며, 頸脈이 뛰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고 때로 기침을 하기도 하며, 大腿內側 部位인 陰股가 차고 다리 정강이 部位가 부어 있으며, 배가 부풀어 커지게 되면 水病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으로 부은 배를 누르면 들어갔다가 손을 떠면 따라 일어나 올라오는 것이 마치 물주머니를 눌렀다 떼는 경우처럼 반응이 나타나니 이것이 바로 水病의 證候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膚脹의 證候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膚脹은 寒氣가 皮膚 部位에 侵犯하여 부어 있는 곳을 두드리면 복소리와 같이 소리가 나며, 부어 있는 곳을 눌러 보아도 탄탄하지 않으며, 배가 부풀어 있고 몸이 다 부어 있으며, 皮膚가 두터워지는데, 환자의 복부를 손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 나오지 않지만 腹部的 色은 變하지 않으니 이것이 그 證候입니다.

鼓脹의 證候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배가 脹滿해지고 몸이 다 腫大되어 있는데, 膚脹과 같이 腫大되어 있지만, 색깔이 푸르며 누르고 腹筋이 두드러져 露出되어 있는 것이 그 證候입니다.

腸覃의 證候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寒氣가 腸外에 侵犯하여 衛氣와 섞이게 되면 氣가 정상적으로 運行치 못하여 寒氣와 衛氣가 凝聚되고 이것이 안으로 癰着되어 부정한 기운이 생겨나 불필요한 군더더기 肌肉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계란과 같은 크기지만 점차 더욱 커져 그 病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임신한 것 같이 커지고 탄탄하게 만져지며, 病이 오래된 것은 臟腑에 붙지 않아 손으로 밀어 보면 움직이

는데, 이 病은 子宮과 관련이 없으므로 월경은 정상적으로 나오니, 이것이 그 證候입니다.

石瘕의 證候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石瘕는 胞中(자궁안)에서 생기는 것으로, 寒氣가 子門(자궁)에 侵犯하여 생긴 것입니다. 子門이 閉塞되어 氣가 疏通되지 못하는데 氣가 疏通되지 못해 생긴 瘀血이 胞中에 머물러 자궁에 유착되어 날로 커지게 되면 마치 임신한 것 같이 커지고 月經이 제때에 나오지 않게 되니 이것이 그 證候입니다. 腸覃과 石瘕는 모두 女子에게만 생기는 것이므로 祛瘀藥, 坐藥, 針 등을 써서 瀉下시켜 없애야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膚脹과 鼓脹을 어떻게 治療해야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먼저 脹滿된 血絡을 瀉血한 뒤에 그 部位의 經氣를 고르게 하고 다시 血絡이 있으면 거들 刺絡하여 없애야 합니다.

V. 結論

이상과 같이 『靈樞·水脹』篇에 대한 관련 文獻을 校勘하고 各家의 註釋을 比較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제 1장에서

‘水與膚脹鼓脹腸覃石瘕石水’에서 『甲乙』, 『千金』, 『外臺』, 『普濟方』에는 모두 ‘石水’ 두 글자가 없고 오직 『太素』에만 있는데, 楊注에 ‘石水 一種은 原文이 없어서 注解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石水’ 두 글자를 삭제하거나 內經의 編纂科程에서 石水の 내용이 脫漏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目窠’는 『素問·平人氣象論』, 『金匱』, 『脈經』, 『病源』에 ‘窠’가 모두 ‘裹’로 되어 있으며, 『太素·尺診』 楊注에 ‘目裹는 眼瞼이다.’라고 한 것을 보아 ‘目窠’는 ‘目裹’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足脛腫’은 『甲乙』, 『千金』, 『外臺』, 『保命集』, 『藏本』, 『馬注本』, 『普濟方』에 모두 ‘足脛腫’으로 되어 있는데, ‘腫’과 ‘腫’은 서로 통용되므로 원문 그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頸脈動’에서 ‘頸脈’에 대하여 楊·馬·景岳·『語譯』·『校釋』 등에 의거 ‘人迎脈’으로 보아야 하며, ‘頸脈動’의 의미에 대하여는 人迎脈은 항상 쉬지 않고 뛰는데 정상적일 경우 약하게 뛰지만 水脹을 비롯한 제반 水病에 걸리면 뛰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니 이에 대한 程의 견해가 임상적인 意義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按其腹’에서 ‘腹’의 의미를 楊·馬·章은 腹部로 보았으며, 景岳·李·黃·丹波는 腹部라는 특정부위를 말하지 않고 ‘腫處’라고 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전체부위를 말하고 있는데, 水脹은 水病 가운데 腹部가 붓는 것이 그 특징이므로 腫處로 보는 것보다는 腹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 2장에서

‘蹇蹇然不堅’은 『太素』와 『甲乙』과 『外臺』에는 모두 ‘穀穀然不堅’으로 되어있고, 『千金』에는 ‘穀穀然而堅’으로 되어 있으며, 『普濟方』에는 ‘敦敦然而堅’으로 되어 있는데, ‘穀’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大與膚脹等’은 『甲乙』에 ‘如膚脹等’으로 되어 있는데, ‘大’字는 위 문단의 영향을 받은 衍文인 것 같으니 마땅히 『甲乙』에 의거 없애야 한다.

‘與衛氣相搏’은 『千金』에 ‘與胃氣相薄’으로, 『外臺』에는 ‘與衛氣相薄’으로, 『保命集』에는 ‘與衛相搏’으로, 『普濟方』에는 ‘與胃氣相傳’으로 되어 있으나 本文의 내용에는 胃와 관련된 것이 없으며 또한 ‘搏’, ‘薄’, ‘撲’은 醫書에서 통용하고 있으므로 原文이 옳다.

‘癰而內著’은 『太素』, 『甲乙』, 『千金』, 『普濟方』에는 모두 ‘癰而內著’으로 되어 있는데, ‘癰’은 積聚 가운데 兩脇間에 있는 것이고 ‘癰’은 腹中에 생기는 積聚 가운데 모였다 흩어졌다하는 것이니, 本節은 腸覃에 관한 것이므로 ‘癰而內著’로 하는 것이 옳다.

‘久者離歲’는 『甲乙』, 『千金』, 『外臺』, 『普濟方』에 모두 ‘久者離歲月’로 되어 있고, 『保命集』에는 ‘久離歲’로 되어 있으나, 『周本』과 『張注本』에는 모두 ‘歲’字가 ‘臟’字로 되어 있고 原文에서 ‘按之則堅 推之則移’라고 한 것과 張의 이에 대한 注의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離歲’는 ‘離臟’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腸覃 節의 ‘月事以時下’는 『太素』에는 ‘月事以時’로, 『甲乙』, 『千金』, 『普濟方』에는 모두 ‘月事時下’로, 『外臺』, 『保命集』에는 모두 ‘月事不以時下’로 되어 있는데, 腸覃은 ‘寒氣客於腸外 與衛氣相搏’하여 생기는 것으로 血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月事以時下’로 보아야 한다.

石瘕 節의 ‘月事不以時下’를 『熊本』과 『日抄

本』에서는 ‘下’를 ‘不’로 보고 밑에 붙여서 ‘不皆生於女子’로 읽고 있는데, 本文의 내용으로 보나 한문의 문법으로 보나 원문대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蟄蟄’에 대하여 丹波·『校釋』·『綱目』에 의거 북처럼 속이 비어 있는 형상으로 보아야 한다.

‘窅而不起’에 대하여 楊·馬·張·黃·章·丹波 등에 의거 膚脹이 氣虛로 인한 氣脹이기 때문에 눌렀다 놓아도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皮厚’에 대하여 景岳·章·丹波·『校釋』·『綱目』에 의거 붓지 않는 곳의 피부가 부은 곳에 비하여 두텁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色蒼黃 腹筋起’에 대하여 ‘腹壁에 靑色の 脈絡이筋처럼 나타나는 것’, ‘腫處의 색이 靑黃色이고 腹部의 筋脈이 나타나는 것’ ‘色の 변화없이 단지 腹筋이 나타나는 것’, ‘전신의 피부가 靑黃色을 띠는 것’ 등으로 보았는데, 이 病證은 黑疸을 말하는 것으로 病證의 정도에 따라 색이 나타나는 변화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腸覃’의 音에 대하여 『康熙字典』에 覃은 藿으로 통한다고 하였고 여기에서 의미는 ‘藿’에 속하니 ‘腸覃(장심)’으로 읽는 것이 옳다.

‘皆生於女子 可導而下’는 腸覃·石瘕 모두에 해당하는 文句이며, ‘可導而下’에 대해 景岳·

李·黃 등은 ‘可以導血之劑下之’라 하였고, 丹波·『校釋』은 ‘用坐藥以導下之’라 하였고, 『譯解』는 ‘可用導血下行穴法以治之’라 하였는데 한의학에서 하나의 病證에 대해 여러 가지 治法을 사용하므로 모두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1章의 ‘黃帝問於岐伯曰 水與膚脹鼓脹腸覃石瘕石水 何以別之’에 대해 2章에서 水·膚脹·鼓脹·腸覃·石瘕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만 石水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內經』과 『金匱』내용을 참조하여 쓴 『病源』에 의거 보충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腎主水하니 腎虛則水氣妄行하여 不依經絡하여 停聚結在臍間하면 少腹腫大革卵如石하니 故云石水요 其候는 引脇下脹痛而不喘이 是也라 脈沈者 名曰石水요 尺脈微大도 亦爲石水니 腫起臍下至小腹하여 脛腫然上至胃脘 則死不治라.

-. 제 3장에서

‘先寫其脹之血絡’은 『太素』, 『甲乙』, 『千金』, 『外臺』에 모두 ‘先刺其腹之血絡’으로 되어 있는데 2章의 膚脹·鼓脹 節에서 그 病證에 대해 膚脹은 ‘腹身大盡腫’로, 鼓脹은 ‘腹脹身皆大’로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脹이 발생하는 부위는 결국 腹部를 말하므로 어느 것으로 보나 문맥상 아무 이상이 없다.

‘後調其經’은 『保命集』에는 ‘復調其經’으로, 『張馬合本』에는 ‘先調其經’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文句가 ‘先寫其脹之血絡’으로 되어 있으니 원문대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刺去其血絡也’는 『太素』, 『外臺』에 의거 ‘亦刺其血脈’으로 하여야 한다.

‘先寫其脹之血絡 後調其經 刺去其血絡也’에 대하여 이것을 脹病 전체의 治法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며, 膚脹과 鼓脹에 대한 治法으로만 보아야 한다.

後代 醫家들이 밝혀낸 膚脹·鼓脹·腸覃·石瘕·石水에 대한 治方으로는 膚脹에는 加味枳朮丸, 木香流氣飲을 쓰며, 鼓脹에는 先脹後喘일 경우 二陳湯, 先喘後脹일 경우 寧肺湯, 下焦虛寒으로 발생한 경우 壯原湯을 쓰며 이외는 調中健脾湯을 쓴다. 腸覃에는 보통 晞露丸, 木香通氣散을 쓰는데 壯盛한 자에게는 四製香附丸을 常服시키거나 桂枝桃仁湯을 쓰며, 石瘕에는 溫經湯, 見睨丸, 和血通經湯을 쓰고, 石水에는 越婢加朮湯이나 眞武湯을 쓰는데 四肢細瘦 腹獨腫大에는 大海蛤丸을, 腹部緊急 大小便澀에는 檳榔散을 쓴다.

Ⅵ. 參考文獻

1. 鄺露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一中社 서울 1992
2.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3. 丹波元簡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4. 樓英 醫學綱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
5.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4
6.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7. 裴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서울 1995
8. 巢元方 諸病源候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9. 孫思邈 千金要方 杏林出版社 서울 1974
10.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6
11. 王燾 外臺秘要 成輔社 서울 1975
12.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13. 王冰撰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14. 王叔和 脈經 大孚書局 臺南 1985
15. 王懷隱等編 太平聖惠方 北京 平常心出版社 1988
1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17. 楊上善 著·簾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
18.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大一書局 台北 1979
19.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90
20. 劉完素 中國醫學大系中素問病機宜保命集
21.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22. 李南九 懸吐·註釋 張氏類經上 法仁文化社 서울 1998
23. 李中梓 內經知要 新文豐出版社 台北 1977
24.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25. 張介賓 類經簡字本 成輔出版社 서울 1982
26. 張介賓 類經正字本 大星文化社 서울 1982
27. 章楠 靈素節注類編醫門棒喝三集 浙江科學技術出版社 中國 1986
28.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29. 周定王櫛 中國醫學大系中普濟方
30. 程士德外 內經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5
31. 陳夢雷等編 醫部全錄 醫經註釋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32. 陳璧琥·鄭卓人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3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34.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宏業書局有限公司 臺北 1976
35. 皇甫謐著·山東中醫學院校釋 鍼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36. 黃元御 靈樞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37. 洪元植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傳統文化研究會 서울 1994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39. 洪元植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서울 1994

VII. 參考辭典

1. 姜寔鎮 進明中韓大辭典 進明出版社 서울 1993
2.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3. 廓靄春 黃帝內經詞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1

4. 金壽山 漢醫籍字典 醫聖堂 서울 1991
5.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94
6.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7
7. 商務印書館 辭源 商務印書館香港分館 香港 1987
8. 李相殷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4
9. 李熙昇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0
10. 張登本 武長春 主編 內經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1. 鄭鳳欽 漢英英漢中醫大辭典 天津大學出版社 天津 1994
1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文大辭典出版部 臺北 1986
13. 車柱環 外 明文 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14. 漢英醫學大詞典編纂委員會 漢英醫藥大詞典 商務印書館 香港 1988
15. 許慎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서울 1990
16. 洪元植 外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9

VIII. ABSTRACT

A Research on the *Su Chang*(水脹) of the *Young Chu*(靈樞)

Distension of hydrops is the pathosis that the hydration is retented in abdomen and that is caused by disturbance of hydrometabolism. Most of hydrops belongs to Consolidation. In part of *OhRyungJinAek-Byeul of Youngchu*『靈樞·五癰津液別』, the

general explanation of hydrops is briefed. But there was nothing about pathogenesis, pathology, symptoms and the method of treatment. The part *SuChang of Youngchu* 『靈樞·水脹』 divided it by Superficial-swelling, Hidden-swelling, Ovarian-hydrops, Stony-uterin-mass and explained it to cure by Category of pathology. So, the books *JeByeongWonHuRon*『諸病源候論』, *ChonGeumYoBang*『千金要方』, *WoiDaeBiYo*『外臺秘要』, *Tae-PyeongSeongHyeBang*『太平聖惠方』, *BoJeBang*『普濟方』, *EuiHakGangMok*『醫學綱目』, *DongEuiBoGam*『東醫寶鑑』 etc. published later, show the method of treatments and medications with quotation the original text of this part. And it is convinced that more profound research of this part is inevitable to understand the correct meaning of hydrops that explained by many of ancient medical scholars, and to apply it to clinical medicine.

There is an explanation on Distension hydrops in the prologue of this part. And t six kinds of disease in this part is simila to edema, so it is called *SuChang*『水脹』. pathology of Edema, Superficial-swellin Hidden-Swelling is reported in the fir chapter, differential diagnosis of Ovarian-hydrops, Stony-uterin-mass is rep in the second chapter, and treatment Superficial swelling, Hidden Swelling

reported in the third chapter. Briefly looking over that chapter, Distension of hydrops is recognized as stay of hydration at the abdomen as a result of disturbance of hydrometabolism and it says about symptoms, pathogenesis, pathology, differential diagnosis, treatment of Hydrops · Superficial-swelling · Hidden-swelling · Ovarian-hydrops · Stony-uterin-mass. And it says about a few things that Superficial-swelling, Hidden-swelling could be differentiated by colors of skin and distension of abdomen, and Ovarian-hydrops, Stony-uterin-mass could be differentiated that it occurs which sex and whether menstruation occurs or not, and treatment of Superficial-swelling, Hidden-swelling, Ovarian -hydrops.